

코로나19 위기

코로나19 대책반, “많은 가능성 열어두고 만반의 준비”

박혜림 기자 apricot12@knu.ac.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학 개강 연기를 권장했다. 개강 후 학생들이 밀집해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학교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교 아래 최초 개강 연기를 실시했고 이후 비대면 강의 진행, 유학생 격리 등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학교 측의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짚어봤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시기는 1월 말이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교에 개강 연기를 권유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소재 대학 중 가장 빨리 개강 연기를 발표했다. 당시 안내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해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며 “사회적으로 격정과 불안이 커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약속된 개강일이 다가온에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7일에 발표된 두 번째 개강 연기는 교육부의 요청과 전반적인 국가 상황으로 인해 의견 충돌 없이 결정됐다. 이어 수원시와 용인시, 동대문구 일대 등 학교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2월 28일 수강 신청 및 정과 대면 강의, 시험, 강의 평가 등 일정이 모두 1주 혹은 2주 후로 연기됐다. 종강이 1주 미뤄진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백운식 국제 부총장은 “학생들이 우려하는 인턴이나 교환학생, 입대 등은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

다”며 “교육부가 규정한 최소 수업일 수가 15주인데 보강 수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1주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0일에는 등교일 추가 연기가 발표됐다. 개강은 예정대로 진행해도, 온라인 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는 방식이었다. 당초 대학 측은 전문가들과 의료팀들의 의견을 따라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하면 대면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캠퍼스 한의대 석사과정 졸업생 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이후 4일간의 한의대 건물 전면 폐쇄 및 방역 계획을 발표하며 등교일 연기를 함께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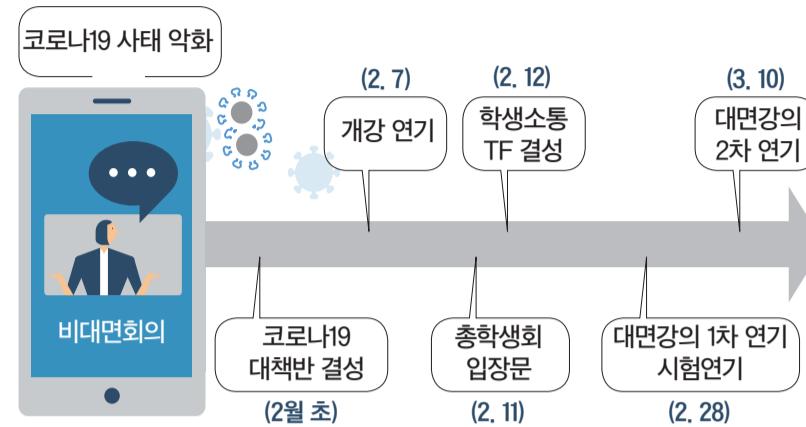
코로나19 대책반 신설해 의사결정

우리학교는 코로나19에 대비하고자 2월 초부터 ‘코로나19 대책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부총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대책반 회의는 부총장, 기조처장, 교무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국제교류처장, 외국인지원팀장, 총무팀장, 행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구글 Meet 화상채팅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월 초 개강 연기가 결정된 것 또한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한 의사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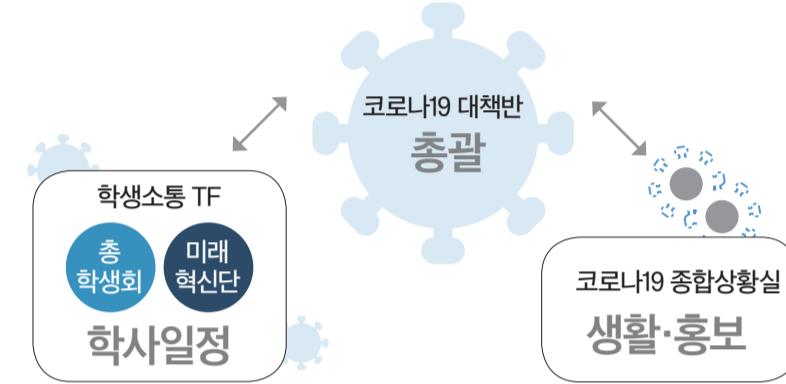
회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현시점에서도 특정한 시간이나 요일을 두지 않고 상시로 개최된다. 각 캠퍼스의 부총장들이 총괄하는 이 회의는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국제 캠퍼스 통합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된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각각의 단과대와 구성원들에게 승인을 받고, 총장실 산하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책 종합상황실’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서울 부총장실 백성선 실장은 대책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과정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책반 의사결정 구조



“

학사 관련 사항은

총학, 미래혁신단과 함께
별도로 학생 소통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

해서도 학장님들과 소통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백 부총장은 비교적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대면 강의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면 강의가 진정한 대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캠 총학, 학생 참여 보장 요구

한편, 서울캠 총학생회는 대책반 회의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캠 총학생회 측은 “학내 안전과 학사 대책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책반 회의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2월 12일 학교 측은 “코로나19 대책반 회의에서는 유학생 입국 관련 문제, 격리 사항 등의 국가적 내용을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총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대신 학사 관련 사항은 총학, 미래혁신단과 함께 별도로 학생 소통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 캠퍼스 학생회는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현재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캠 총학생회 최인성 회장은 “부총장 주재 TF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며 “현재 학사교육, 안전대책 문제, 건의 등 학생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 TF와 관련해 미래혁신단 학생지원센터는 “초반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여 회의했지만, 비대면 강의 이후에는 이에 집중하려고 잠시 멈췄다”며 “회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모여서 진행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KCDC국내외 감염증 예방
NOW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발행일: 2020. 2. 25

